

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..
오늘의 아침편지

★ 책을 쓰는 이유 ★

책을 쓰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은
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.
만약 진짜 꿈이라면 통제가 불가능하겠지요.
책을 쓸 때는 깨어 있기 때문에 시간, 길이,
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. 오전에
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을 쓰고 나서
때가 되면 그만 씁니다. 다음 날
계속할 수 있으니까요. 진짜
꿈이라면 그렇게 할 수
없지요. - 무라카미 하루키
- 김진아, 권승혁의《작가란 무엇인가1》중에서 -

* 그렇습니다.
깨어서 꿈꿀 수 있기 때문에
책을 씁니다. 책을 쓰면서 꿈길을 거닙니다.
그 꿈길에서 만난 사람이 다시 책이 됩니다.
책을 쓰면서 꿈을 꾸고, 꿈을 꾸면서
책을 씁니다. 그것이 작가입니다.
그것이 사랑입니다.

보시니 참 좋았더라 /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



광양사랑의교회
http://kysarang.org/

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.
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.
물이 바다를 덮음같이
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.
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.
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
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
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
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.
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
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교회로 나가서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
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.
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
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.

대한예수교장로회(통합) 순천노회 광양남시찰 소속
설립일 : 2004.4.12
545-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-10번지
http://kysarang.org/ www.smileman.info
☎ 061-793-1294(교회) / 794-7130(사택)
담당교역자: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(010-5686-3626)

- 광양사랑의교회는
주님이 꿈꾸시는 교회
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
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
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
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
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
의교회의 꿈입니다
- 광양사랑의교회는
모든 성도가 매일성경(성서유니온)독상지로 매일
묵상하는 교회입니다.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장년
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,
같은 마음, 같은 뜻,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
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


같은말	같은마음	같은뜻	같은열매
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전히 합하라(고전1:10)			

• 광양사랑의교회는
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

예배 및 모임 안내

주일 낮예배	주일오전 11시
새벽기도회	매일새벽 5시30분
어린이예배	주일오전 9시
청소년부예배	주일오전 9시
삼일밤예배	수요일오후 7시30분
민들레주부목상모임	금요일오전 10시
목상나눔모임	나눔터별 경향시간
화요성경학교	매주화요일 오전10시

•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
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(스리랑카) SU 에스라



GwangYang SARANG Church | kysarang.org

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.

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12호 사순절다섯째주일 2015년3월22일

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
GWANGYANG SARANG CHURCH

사랑합니다! I LOVE YOU



더 목마릅니다. 더 뱃속 깊이 주립니다.
조금 더 서로 도닥이며, 조금 더 서로 안쓰러워하면서
조금씩 더 견디다가고 고개를 끄덕입니다.
그리 완강히 버티던 가지들도 유순하게 묶여지면서
조금씩 화사한 여백을 키워내고 있으니
말씀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계절에
받아 먹어라. 받아 마셔라. 피보다 진한 눈물 건너온 그분의 성찬을 받으며
오늘은 꼭 우리도 한 그릇 밥이 되어 그들 앞에 잘 차려지면 좋겠습니다



푸른줄발&일만한물가

광양사랑의교회
www.kysarang.org

사랑의
전도편지

예수 믿으세요 봄이 와요

두꺼운 외투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 봄이 가까이 왔나 봐요.
겨울이 지루해지는 이 무렵엔 춥더라도 서둘러 옷장 정리를 해버리지요.
겨우내 입은 칙칙한 옷처럼 벗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.
몸에 배어 어느 새 익숙해진 죄의 습관이지요.
봄은 올 듯, 쉽게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.

오늘 낮엔 햇살이 참 따스하네요.
봄을 기다릴 때 맞는 화사한 햇빛은 기분을 즐겁게 하고
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주고, 집안에 가만있기 힘들도록
무언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.
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. 묵은 죄의 습관을 벗을 힘을 주시거든요.
다 풀린 줄 알았는데 상황이 되면 가라앉았던 흉터물처럼
맘속을 휘저어 놓는 죄의 습성이 있어요.
어쩌면 날 괴롭히고 싸워 이겨야 하는 죄의 습관은
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안 되던 그 것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.
얼마간의 노력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,
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요.

쌀쌀하고 어두운 날씨 때문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다가
환한 햇살이 비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,
일부러 햇살을 맞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
예수님의 말씀은 날 다시 깨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지요.
내 감정과 자존심과 성질대로라면 진작 그만두었을 것이지만,
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분의 따스한 가슴으로 다시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.

쉽지 않지만 기도로 내 감정을 주관해주시기를 구하고,
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이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
다시 한 번 낮아지고 나면, 따스한 햇살을 맞을 때처럼 맘이 편안하고,
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. 그 죄와 싸우느라 안에서 끊임없이 변명하고 고집하느라
멈추었던 나의 일상이 다시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지요.
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전투에서 얻는 기쁨과 승리에는
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어요.
그러 하기에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나 봐요.

예수 믿으세요. 봄이 와요.

- 글쓴이 이중혜 ☺

“예배”는 “복음”에 대한 “응답”입니다

• 주일 낮 예배

주일오전 11:00

경배와 찬양	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	다같이
예배의부름	찬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	다같이
신앙고백	사도신경	다같이
참회의기도	영광송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5절만	다같이
대표기도		박사라권사
찬양	찬426장 이 죄인을 완전히 하사옵고	다같이
말씀선포	마가복음 12:28~34	
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		
결단&합심기도	찬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	다같이
봉헌기도		인도자
축도(강복선언)		인도자
나눔&환영		성도의교제

주일오후찬양예배

주일 오후2시
주기도문5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
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

수요기도회

수요일 오후7:30
묵상나눔모임

새벽기도회

매일 새벽5:30
마가복음 강해

• 나눔&환영

Sharing & Welcome

■ 3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■

1주:목회기도 / 2주:박다순사모 / 3주:박동석집사 / 4주:박사라권사 / 5주:문숙희집사

- * 새가족 환영 :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.
- * 절기안내 _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.
- * 예배안내 _ 다음주는 “나눔과 감사의 연합예배”로 드립니다. 오전10:15부터
- * 꼭 매일성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그러나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.
- 묵상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
- * 장경하집사님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^^
- * 기도제목
-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
-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
- * 디아코노이(섬기는 사람들) 묵상나눔 모임
- 매주 수요일 오전10~12시 본교회에서

